[附錄]

「破睡漫草—金雲翹傳」

梁 白 華(拔)[1]

풍우연자루(風雨燕子樓)를 세(洗)하여 관혜혜(關盼盼)의 고사를 조(弔)할 길 바이없고 춘초이화원(春草梨花院)을 쇄(鎖)하니 이사사(李師師)의 면영(面影)을 지금 어디 가 찾는단 말인가. 차막(遮莫) 진회(秦淮)의 도두(渡頭)에 신류(新柳)는 여연(如烟)한데 연풍(軟風)은 정자렴(丁字簾)을 취(吹)하여 교후(嬌喉)는 극을 전(轉)하고 벽월(壁月)은 아자란(亞字欄)을 사(射)하여 무영(無影)이 파사(婆娑)하도다. 성시호화(誠是豪華)의 땅이로구나. 강남화발수유유(江南花發水悠悠)한데 인도진회진해수(人到秦淮盡解愁)를 불관풍연가만리(不管風烟家萬里)하고 오경회리전가후(五更懷裡轉歌喉)라. (桃花扇傳奇)

오로(嗚呼)라! 진회(秦淮)의 땅이 과연 막수(莫愁)의 향(鄕)이런가? 그러나 종내 천하 박행가인의 도회장 됨을 내하(奈何)오? 혹평을 마소라. 이춘함리(移春檻裡)에 준이(蠢爾)하는 물(物)이 원래 요마로 생(生)함이 아니요. 색(色)을 죽(鬻)하고 미(媚)를 파는 자 본디 피배(彼

---

1) 梁建植(1889-1944), 필명을 菊如, 白華 등으로 쓰며 1915년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등단하였으나 중국문학, 불교사상 등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하였다. 이 글은 백화 양건식이 1921년 6월-8월 『開闢』제12호-14호에 연재한 글로서 우리나라에서 『金雲翹傳』에 관해 언급한 유일한 문장이기도 하다. 이 글은 『양백화문집』제3권(강원대출판부, 1995)에도 수록되어 있다. 관련 자료는 崔溶澈의 「白華 梁建植의 中國文學 硏究와 飜譯에 대하여」(『중국어문학』제2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6.12)를 참조 바람.

輩)의 본의는 아니러니라. 운명과 경우가 피등(彼等)으로 하여금 가취해(歌吹海)에 투(投)치 아니치 못하게 함이라. 나는 부정예토(不淨濊土)로써 막수(莫愁)의 향(鄕)을 삼는 도배(徒輩)를 배(排)하노라. 그러나 매색배(賣色輩)의 경우를 보고는 마침내 일국(一掬)의 누(淚)가 없지 못하다.

「金雲翹傳」 한 편은 청심재인(靑心才人)이 지은 바라. 중국소설 중에 그다지 걸작이라 칭할 것은 못되도다. 그러나 순결무구한 소녀가 주변의 경우에 끌려 마침내 연화풍월지(烟花風月地)에 떨어져 널리 고초를 맛보고 갖추 간난(艱難)을 겪는 것을 서(敍)한 것이 저으기 볼 만한 것이 없지 않도다. 다만 결합의 정천을 보하여 대단원을 경사로 타출(打出)한 것은 이런 소설의 상투 수단이다. 저 현대의 소설을 간과(看過)한 눈으로 비참 심각한 것이 아니면 마음을 위로치 못하는 독자에게 대하여는 아마 불만족함이 심하리로다. 부(否)라. 유(有)함이 불가한 결말을 지은 것은 호문(好文)의 무리가 깊이 동정을 표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경력의 곡절이 있고 부세의리(浮世義理)의 무정한 것을 술래(述來)하여 보보대파열(步步大破裂)에 가깝게 하는 수완에 이르러는 또한 볼 만할 것이 없다 못하리니 문사(文辭)의 기려(綺麗)를 상(尙)하고 각색의 하여(何如)를 불고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도리어 탁절(卓絶)한 것이 있도다. 『홍루몽』의 착잡함, 『금병매』의 음외(淫猥)에 실(失)함, 나는 차라리 『金雲翹傳』의 짧고 맥맥일관(脈脈一貫)한 것을 취하여 『수호전』『서유기』이외에 중국소설을 완상(玩賞)코저 하는 선비에게 추찬(推讚)코저 하노니 『평산냉연(平山冷燕)』의 한갓 싯구로서 만재(滿載)함과 『옥교리(玉嬌梨)』의 평평하여 범조(凡調)임과 같은 것은 원래 족히 취할 것이 못된다. 하물묘 『오색석(五色石)』이며 『금고기관(今古奇觀)』이랴. 『잡사비신(雜事秘辛)』으로써 유염(幽艶)하다 칭하고 『비연외전(飛燕外傳)』으로써 기절(奇絶)하다 이르니 나는 중국문학을 위하여 이를 슬퍼하지 아니치 못한다.

정(情) 한 자는 즉 이 책의 대경(大經)이오 고(苦)의 한 자는 즉 이 책의 대위(大緯)라. 그러하나 정은 반드시 경(境)을 대하여 생(生)하고 고(苦)는 반드시 만나야 생(生)한다 함은 제1회의 모두에 김성탄이라 서명하고 평한 말이다.

한 유담선(劉淡仙)을 끌어내어 인자(引子)를 짓고 허형담영(虛形淡影) 중으로부터 취교(翠翹)의 종신정고(終身情苦)의 경(境)을 가져다가 팔구(八九)로 탁출(托出)한 것이 이 제1회의 각색이다. 보라, 어떻게 말하였는가?

왕취교(王翠翹)는 일개 가려(佳麗)라. 호금(胡琴)에 묘하고 시문에 교하니 즉 『金雲翹傳』의 주인공이다. 하루는 청명에 제매(弟妹)를 이끌고 답청(踏靑)을 시(試)할새 행행중행행(行行重行行)하다가 한 고총(孤塚)을 보았다. 자(姊)는 알지 못하므로 동생이 말하되 "명기 유담선의 묘로써 살아서는 만인의 처가 되고 죽어서는 지아비 없는 귀신이 되었다." 취교가 장탄식함도 실로 우연이 아니로다. 이에 시 한 수를 지으니,

色香何處也? 憑弔痛心哉!
明月冷鴛被, 暗塵封鏡臺.
玉雖黃土蝕, 名未白雲埋.
尙有如澠酒, 無人奠一盃.

취교가 저립양구(佇立良久)에 능히 가지 못하는데 홀연 일진 괴풍이 있어 곤곤(滾滾)히 취교의 몸을 취산(吹散)하였다. 이는 즉 담선과 취교와의 인연이 불천(不淺)함을 보임이니 독자로 하여금 얼채(孽債)의 유래한 바를 알게 함이라. 저 백팔(百八)의 요성(妖星)이 복마전(伏魔殿)으로부터 주출(走出)하는 것과 그 구상(構想)이 상사(相似)하도다. 인과주의(因果主義)로써 경(經)을 삼음은 중국소설에 적지 않은 터이다. 음서 『각후선(覺後禪)』과 같은 것도 오히려 이를 효빈(效顰)하였

다. 동방의 소설작자에 이르러는 이 주의를 주수(株守)하여 조선 문학상에 부질없는 예를 끼쳐 그 용(俑)이 오래 문단에 전래하였다. 그러나 인과주의는 소위 권징적(勸懲的)소설에는 절호한 것이니 부녀자 불학(不學)의 무리에게는 정말같이 믿게 할 수 있을 것이요 교훈으로써 소설의 제일의라 칭하는 자에게는 물론 금과옥조일 것이다. 그러하나 음외(淫猥)의 책까지 이를 배합하여 추(醜)를 가리고자 함에 이르러는 인과소설을 위하여 또한 가엾은 일이 아닌가.

망연자실하는 제(際)에 제음(蹄音)이 알알(戛戛)하고 한 미소년이 기마하여 오는 자가 있도다. 이는 동리의 서생, 성은 김 이름은 중(重), 취교의 제 왕관(王觀)과 동창의 벗이라. 가인재자가 서로 만나 이에 후단의 설자(楔子)를 짓도다.

귀가 후에 취교가 그 매(妹) 취운(翠雲)에게 말하길 "대저 여인의 몸은 이를 중히 한즉 태산(泰山)이요 이를 가벼이 한즉 홍모(鴻毛)라. 백벽(白璧)의 청승(靑蠅)이 종신에 관계하나니 가히 신(愼)치 않을까 보냐."

서기호(庶幾乎) 천하부인의 좌우명을 지을 수 있을까.

제2회는 또한 후단의 복선이니 역시 인과설이다. 인과설도 이에 이르러 극하도다, 취교 일생의 운명이 자못 이에 복료(卜了)하였으니 취교 몽중에 한 미인을 만났도다. 담장소복(淡粧素服)에 행검도시(杏臉桃腮)로 빙빙정정(娉娉婷婷)하여 완연히 선매(仙妹)와 같은 낭자라. 저 말하되, "금일 단장회상(斷腸會上)에 있다가 경의 고재(高才)를 득문(得聞)하고 단장회주가 대회하여 그 회중인(會中人) 될 줄을 알고 단장 제목 열 개로써 경에게 보내어 제영(題詠)을 구하니 경은 그 쾌제(快題)어다."

그 제목에 왈 『석다재(惜多才)』『석박명(惜薄命)』『비기로(悲岐路)』『억고인(憶故人)』『념노교(念奴嬌)』『애청춘(哀靑春)』『차건우(嗟蹇遇)』『

고령락(苦零落)』『곡상사(哭相思)』라. 취교가 전홍(剪紅)의 붓을 잡아 모두 제료(題了)하니 미인이 격상(激賞)하고 가고자 하거늘 취교 재회의 날을 물으니 답왈, "전당강(錢塘江)에서 상우(相遇)함이 있으리라. 풍령쟁쟁(風鈴錚錚) 남가몽파(南柯夢破)하니 취교(翠翹)가 오히려 와상(臥床)에 있도다. 월명여주(月明如晝)한데 정시삼경시분(正是三更時分)이라. 오호라 시몽야(是夢耶)아. 취교의 일생을 위하야 이에 친염(襯染)을 지음이니 취교로 하여금 인과라 단념케하여 운명의 파농(簸弄)에 맡김도 또한 이 까닭이로다. 이 어찌 인생의 은미(隱微)를 발현하고 인정의 금선(琴線) 탄(彈)하고자 하는 소설 작가가 취코자 하는 호수단(好手段)이리오. 그러하나 고래로 꿈에 탁하여 장래의 경로를 가만이 설파한 자 적지 아니하니 동양의 소설 희곡을 저(著)하는 자가 왕왕 이 수단을 씀은 이제 갱언(更言)할 필요가 없도다.

저 기마소년은 이젠 사랑의 포로가 되었도다. 마침내 백방으로 책(策)을 강(講)하다가 왕씨 택후의 일원을 찾아 이에 주(住)하며 뜻을 통하려 하니 기다리면 감도 떨어지는 것이라. 머문지 월여(月餘)에 하루는 가산지상(假山之上) 벽도수두(碧桃樹頭)에 일고(一股) 금차(金釵)가 걸림을 보았다. 오호라 이는 사랑의 오작교로다. 이로부터 김중(金重)은 마침내 취교에게 그 뜻을 통함을 얻었으니 그간의 경로는 반드시 이에 세설(細說)할 것이 못되도다. 별로 기상(奇想)이 천래(天來)하는 결구도 없고 작자의 기량이 어떠하다고 과장할 가치도 없지만 사랑은 성취하였도다. 그러나 그 성취는 조로(朝露)와 같고 춘몽과 같았으니 무정하고 미냉(未冷)하여 결국은 단장상심의 일이라.

제3회는 이 두 사람의 환천희지(歡天喜地)의 장이니 원우유벽(園隅幽僻)의 땅에 소공(小孔)을 찾아 한 갈래 동로(洞路)를 짓고 둘이 상회(相會)하여 심간(心肝)을 토하니 이른바 혈(穴)을 찬(鑽)하여 밀회하는 자라. 저 시정무뢰의 야합과 무엇이 다르랴. 그러하나 이 책이 마침내

사개(些個)의 가치 없고 후단에 기다(幾多)의 참화(慘話)를 작래(作來)하여 독자로 하여금 동정의 눈물을 뿌리게 하기 어렵도다. 작자는 이에 따로 한 살아있는 수단을 설(設)하였으니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을 말라. 이로 인하여 후단의 사사물물(事事物物)이 모두 활현(活現)하나니 독자가 위하여 읍(泣)하고 나 또 위하여 차탄하노라. 취교가 김중의 동금(同衾)을 욕(欲)함을 거부하고 최앵(崔鶯)을 차석(嗟惜)하며 자가만강(自家滿腔)의 소회(所懷)를 말함을 들으라. 원컨대 랑(郎)은 종신으로써 맹서하고 첩은 정계(正戒)로써 자수(自守)하여 쌍쌍이 취소도곡(吹簫度曲)하며 완월연시(玩月聯詩)하여 재자가인의 정치(情致)를 극하며 음부간부의 악류(惡流)에 불타(不墮)한즉 나 이인은 바로 만고의 명교풍류(名敎風流), 풍류의 방주(榜柱)를 지을지라 어찌 가전가법(可傳可法)할 성사가 아니리오 이에 취교는 능히 처녀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 식견이 범속에 절(絶)하도다. 저들이 정맹(訂盟)하고 작(作)한 바의 소위 맹서라는 것을 한번 보라. 맹(盟)에 왈,

> 同心人金重王翠翹, 某年某月某時生, 謹以心香一炷, 水醴一巵, 訂盟于高天厚地之靈, 窃聞夫婦尙義, 義在綜身不移, 兒女多情, 情切死生無負前時, 翹願有家, 重願有室, 憐才慕色已深結于同心, 今日, 重慮其始, 翹慮其終, 瀝胆傾心, 敢言盟于異日, 自盟之後, 男期九死無變, 女誓一節終身, 縱外來之盟, 或有不測, 而吾心之天, 斷乎一定, 苟偸此盟, 神天共鑒.

주감(酒酣)에 야심(夜深)이라. 김생의 청에 응하여 취교가 호금을 탄하니 발이발(撥一撥)에 홀완(忽緩)하얀 소풍(疎風)과 같고 홀홀하얀 취우(驟雨)와 같아 원(怨)하는 듯 흐느끼는 듯 소(訴)하는 듯 김생으로 하여금 광희욕절(狂喜欲絶)케 한 후에 언연무연(嫣然嫵然)히 호금을 가져다가 김생에게 주는데, 이때 취교의 그 태(態)가 어떠하던고? 성안(星眼)은 몽롱하고 홍거(紅渠) 영검(映臉)하여 연(烟)이 작약(芍藥)에 농(籠)하고 비가 도화를 점(霑)함과 같은지라. 김생이 정사(情思)를

금치 못하고 욕화(慾火)를 막기 어려워 마침내 취교를 잡아 가슴 속에 안을 때에 취교 단호히 이를 막으며 낭군은 우기착마호(又其着魔乎)아 하여 일조(一嘲)하고는 여인이 꿈을 지킴이 병(甁)을 지킴과 같으니 병이 복전(復全)키 불능하고 여자가 일점(一玷)하면 어찌 복결(復潔)을 지켜 정정히 화촉의 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감히 목으로써 그 애인에게도 불허하는 기개가 있음에 이르러는 실로 희세(稀世)의 진(珍)이로다. 저가 몸을 중히 하고 절(節)을 지킴이 이와 같은 즉 이에 이르러 취교의 뜻은 순결하고 무구하여 찬혈(鑽穴)하는 자와 전연히 유를 달리 하였도다. 실러가 이르길 "사랑은 세계 현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하니, 누가 순결한 사랑으로써 경조부광(輕佻浮狂)한 육정(肉情)과 동일시하고자 하는고?

처녀의 순결은 천하의 극미(極美)라 꽃이 염(艶)치 않음이 아니요 달이 아름답지 않음은 아니라. 그러나 저 처녀의 순결에는 미치지 못하나니 천복지재(天覆地載)의 사이에 그 아름다움을 종(鍾)하고 그 수(粹)를 발(拔)하여 이에 처녀의 순결을 작(作)하니 아마 보옥의 찬연함과 같도다. 취교는 능히 그 존(尊)함을 알았도다. 이를 포(抱)하고 마침내 천하 부인들의 귀감을 작(作)하려고 소기(所期)하였도다. 그러나 운명은 저의 생각한 바와는 달랐도다. 저를 구(驅)하여 이를 구학(溝壑)에 빠트리고 그 육과 골(骨)을 병(併)하여 니(泥)로 화(化)코저 하도다. 작자 저가 처녀의 순결을 고수함을 보고 마침내 후단에 비풍참우(悲風慘雨)의 경을 반사(反寫)하여 이래(而來)하니 이에 독자는 한 방울 동정의 눈물을 가련한 왕취교에게 향하여 불천(不賤)함을 부득(不得)하도다.

환락극이애정다(歡樂極而哀情多)라, 화소조가(花笑鳥歌)의 아침이 흑풍백우(黑風白雨)의 저녁으로 화거(化去)함을 어떻게 할고?

제4회는 총시(總是) 상심통한(傷心痛恨)의 붓이라. 재자가인은 마침

내 서로 분리를 고하고 취교 심중의 희망은 모두 다 구름으로 산하여 후단의 심각참담한 발단을 작하니 김생은 숙부의 상에 요양(遼陽)으로 분(奔)하고 왕씨의 가(家)는 이부(姨夫)의 가에 누(累)하여 재난이 돌여이기(突如而起)하여 취교의 부친과 동생은 마침내 이를 면치 못할지라. 취교는 원래 남자의 기상이 있는터이라. 저가 존숭하고 고수하던 처녀의 순결도 지금에는 방척(放擲)치 아니할 수 없고 후의 평생의 포부도 마침내 가를 위하고 부를 위함에는 이를 희생에 공(供)치 아니치 못할지라. 저는 이 뜻을 마침내 부모에게 고하였도다. 이곳에 참화(慘話)가 실다(實多)하도다. 그러하난 이는 천하에 다유(多有)한 상경(狀景)이오 고래의 패사가(稗史家)의 상투수단이라. 취교는 그 매(妹) 취운에게 김생의 일을 말하고 후에 매에 걸(乞)호대, 대신하여 그 정을 김생에게 탁할 일로써 하니 부앙(俯仰)에 감개를 불승(不勝)이라. 그 김중에게 주는 편지에 이르되,

취교 박명하여 화가 소장(蕭墻)에 기(起)하니 제영(緹縈)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원(寃)을 명(鳴)함을 불위(不爲)하고 겨우 이기(李寄)의 몸을 팖을 본(本)하여 애오라지 가난(家難)을 소(蘇)할랏다. 몸을 팖은 반드시 군의 욕이요 괴(愧)요 한일지라. 회사(回思)컨대 등하투사(燈下投梭)의 거(拒)는 마침내 첩의 박정의 안(案)이 되니 나의 두던 말을 생각하면 어찌 원망(怨望)이 없으료. 첩의 박정함을 생각하면 자속(自續)할 수가 없노라. 삼가 사매(舍妹)로써 하진(下陳)에 충(充)하노니 낭군이 만일 불기(不棄)하고 부(俯)하야 이를 이룰진대 서기사정(庶幾思情)을 만일에 소보(少報)하리로다. 천애해각(天涯海角)으로 지일등정(指日登程)하니 월하의 맹이 이미 망사(妄思)를 이루었도다. 호금일장, 원곡(怨曲)일투, 유향(遺香) 일봉은 타일 아매(我妹)와 분향조금(焚香調琴)하고 요가도곡(謠歌度曲)하여 향연(香烟)이 요요(繞繞)하고 처풍(凄風)이 절력(浙瀝)하여 오면 첩의 혼이 있음이니 다행히 배명(杯茗)으로써 내 원혼에 빈(瀕)한즉 그 은혜를 받음이 이다(已多)라. 생사의

이별을 애오라지 이에 다하니 언단정장(言短情長)하여 실포불능(悉佈不能)일 새 오직 바라노니 노력가찬(努力加餐)하고 행히 써 첩을 물념(勿念)하라. 천리 김랑으로 맹하(盟下)에 상할 새 욕애의 매 왕취교는 염임이배(斂衽而拜)하노라.

매파는 온다. 임청(臨淸)의 객인이 미첩을 구하물 고하거늘 취교 눈물짓고 낙(諾)하니 이에 운건화복(雲巾華服)의 객인을 현(現)하도다. 청에 응하여 취교한 구를 금선(金扇)에 제하고 또한 호금을 탄하니 곡은 무엇인고? 홍안원(紅顔怨)이라. 애원처초(哀怨凄楚)하여 문자(聞者) 다 유체(流涕)라.

> 那人道:"果然絶技, 要多少財禮?" 咸媒婆道:"他要救父, 非五百兩不濟事." 那人道: "財禮太多, 三百兩罷." 翠翹道, "賣身不能濟事, 賣之何用?" 那人道: "就四百兩罷." 翠翹道: "非五百兩不可." 那人又增五十兩.

꽃과 같고 옥과 같은 소녀 왕취교도 이제는 매물이 되었도다. 처녀의 순결을 견수(堅守)하고 애인에게도 몸을 불허하던 가련한 취교도 헐가 방매물이 되었도다. 삼백량으로부터 사백량, 사백량으로부터 사백오십량이라. 처녀의 순결도 이에 이르러는 일환니(一丸泥)와 같도다. 오호라 빈(貧)이여! 고왕금래(古往今來)로 열사를 읍(泣)케 하고 절녀를 곡(哭)케 하여 그 절조(節操)나 그 덕의(德義)나 부(富)에게 유린을 당하나니 고등반멸(高燈半滅) 아래 누안(淚眼)이 몽롱한 자가 어찌 한 왕취교 뿐이리오. 왕(往)하여 사회의 이면을 보라. 협사연화(狹斜烟花)의 땅이 모두 이 소혼단장(銷魂斷腸)의 거리가 아님이 없으리로다.

그 저녁에 취교가 꿈에 김생을 보노라. 김생이 삼백량을 던져 취교를 구하고 황도길일(黃道吉日)을 택하여 이에 혼연(婚宴)을 거행할 새 생고성(笙鼓聲)은 높은데 두 사람은 동방에 들어간다. 홀연 저 임청(臨淸)의 객의 일군이 동방에 타입(打入)하여 취교를 창주(搶走)커늘

취교 마상에 부액(扶掖)되어 질구(疾驅)하다가 도중에서 김생을 대하고자 하여 정히 말에서 내리고자 하는데 일간(一看)하니 이 하사(何事)오? 평지가 아니라 커다란 화갱(火坑)이라 열염(烈焰)은 등등(騰騰)히 광비(光飛)하고 만장의 화기(火氣)는 곤곤(滾滾)히 상래(上來)하여 한 덩이 두대(斗大)한 화구(火球)가 취교의 면상을 맹타커늘 아 나를 태워죽이는구나! 하고 놀라 깨어보니 일장 괴이한 꿈이라. 취교가 붓을 잡아 심지를 돋우고 경몽각팔영(警夢覺八咏)을 제(題)하고는 이필(已畢)에 다시 취침치 못하고 오직 체읍할 뿐이로다. 아지 못게라 다시 하상(何狀)을 작하고자 하는고? 재간하회분해(再看下回分解)라는 상투 문구로써 이에 제4회를 종료하도다.

제5회 제6회는 소위 수탄장(愁嘆場)이라. 부모는 그 아들이 남의 첩을 작함에 불인(不認)하고 취교는 몸으로써 가난(家難)에 대신코자 하며 친자의 은애를 곡진히 사래(寫來)하여 그 입혼서(立婚書)에 부친이 화압(花押)을 불긍(不肯)하는 것 같은 인생의 비극을 현출(現出)하여 여온(餘蘊)이 없도다. 그러하나 이는 고왕금래로 동서의 패사가류가 상용하는 필법과 대차(大差)가 없으니 특별이 여기에 그 경개를 술할 것도 없도다. 그 소위 성탄외서(聖嘆外書)에 왈, 천하에 가장 사람의 심곡(心曲)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정(情)이다. 그리고 정의 사람의 심곡을 어지럽혀 가장 포파(佈擺)키 어려운 것은 지정(至情)이니 즉 겨우 일단이라도 이미 소수(消受)키 어렵거늘 하물며 김생의 은정, 부모의 효정, 형제자매의 수족의 정, 몸을 팔아 비인(匪人)에게 좇는 고정(苦情), 집을 떠나고 세상을 버리는 별정(別情), 회(賄)를 행하여 원(寃)을 푸는 세정(世情)이 일시 잡답(雜踏)하여 취교의 촌심을 교요(攪擾)하니 취교된 자 이때 발부(發付)키 쉬우리오 하였으니 그렇도다. 취교는 백정(百情)이 착출(錯出)하는 사이에 있어 인세(人世)의 비절(悲絶)에 우(遇)코저 하는도다. 당시의 사회는 가련 취교를 파(把)하여

널리 천하의 고초를 받게 하며 그 처녀의 순결을 파(破)케 하여 이를 시랑(豺狼)의 무리에 위(委)하여 이를 니도(泥塗)의 안에 떨어지며 이를 화(化)하여 연화장 속의 요마를 작하고자 하도다. 오호라! 사회는 오늘도 옛과 같고 동도 서와 같거늘 홀로 사회의 죄 됨을 잊고 사회의 희생을 목도하여 통매냉조(痛罵冷嘲)를 무불지(無不至)하니 나 위고가 아니라도 또한 장차 절규하여 사회의 죄를 명(鳴)코자 하노라.

오호라 저 창창자천호(蒼蒼者天乎)아! 하늘은 하기무정(何其無情)가? 열녀로 하여금 어니(淤泥)의 사이에 추락 고뇌케 하고자 하는도다. 꽃 겨우 발코자 하거늘 광풍이 이를 열(裂)하여 세분분(細紛紛)을 만들고 달이 겨우 둥글고자 하거늘 부운(浮雲)이 이를 폐(蔽)하여 흑암암(黑闇闇)을 만들도다.

제7회에 이르러는 읽는자 권(卷)을 지(持)하고 위연장탄(喟然長嘆) 않을 수 없으니 인정(人靜)하여 취교 왕(往)을 생각하고 내(來)를 생각하며 전일정맹(前日定盟)의 광경과 금일매신(今日賣身)의 광경이며 후일상사(後日想思)의 광경을 병(併)하여 일상(一想)하면 촌심(寸心)이 거의 열파(裂破)하겠도다. 우수를 소여수(訴與誰)아? 상사를 지상지(只相知)로다. 노천(老天)이 불관인초췌(不管人憔悴)하여 누첨구곡황하일(淚添九曲黃河溢)하고 한압삼봉화악저(恨壓三峰華嶽低)로다. 만도서루의간(晩到西樓倚看)하니 저 석양고도(夕陽古道)와 쇠류장제(衰柳長堤)로다. (西廂記)

취교의 심정은 오히려 당년 최앵앵의 우수에 과(過)하도다. 마침내 혈(血)로써 일봉(一封)을 재(裁)할 새 그 매(妹)의 경성(警醒)하여 상어(相語)함에 미쳐서는 가련한 여아의 심중은 일시에 난요(亂擾)하여 그 대를 지상에 혼도(昏倒)하도다. "나의 정은 바다와 같이 넓고 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깊다."함은 사옹(沙翁, 셰익스피어) 어느 희곡의 주인공이 그 애인을 만나 발한 말이라. 취교 일석(一夕)의 환(歡)을 작함도

아니로다. 그러하나 일편의 정을 잊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부세(浮世)의 의리는 이 가련아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남에게 향하여 전(轉)치 않을 수 없게 하니 통한(痛恨)이 철골(徹骨)하여 상래(想來)에 인사불성의 역(域)에 듦이라. 부모곤제(父母昆弟)가 다 와서 이를 구하니 취교 깨어나 마침내 김생의 일을 말하는 한 차례에 부모와 이를 듣는 자 다시 또 가인(可忍)치 못할 눈물을 흘리도다. 익일(翌日)에 피객(彼客)이 와서 가마로써 장가들 것을 구하니 취교 울며 무엇이라 말했는고?

> 金生金生, 你妻子今日與你分離了, 今生不得偕連理, 願到來世續舊緣, 我王翠翹薄命也, 風流佳婿不能受享而反去嫁狂且, 可憐一朶嬌花浪掷淤泥之上, 天天既不付與我好命, 索性不遇着才人, 既遇着才人怎生就不結了此緣?

비비절절(悲悲切切)하고 곡곡제제(哭哭啼啼)로다. 그러나 내하(奈何)하리오. 가련하도다. 한 절대(絶代)의 가인은 이 마우준물(馬牛蠢物)에게 반(伴)하였도다. 이 마우준물은 어떠한 자런고? 성은 마(馬)라 부르고 방탕삼매(放蕩三昧)에 지의(紙衣)의 경애(境涯)가 되어 임치(臨淄)에 낙백하다가 악파(惡婆) 마수(馬秀)와 어울려 맞는 부부가 되어 사람을 사기 위하여 이에 온지라. 가련하도다. 열녀 왕취교는 그 장중(掌中)에 귀료(歸了)하였으니 조화가 정묘(精妙)하여 교(巧)하게도 기(欺)하였도다. 얼마나 통한(痛恨)한 일이오. 취교 저의 집에 와 혜안으로 얼른 보고 의아를 이기지 못한다. 이밤에 독좌하여 통분을 억누르기 어려워 마침내 자살코자 하니 위재(危哉)라 탁상의 척도(刺刀)에 손이 갔도다. 일 찰나간이로구나 저는 조(操)를 지켜 이에 절명하리로다. 절명할가 취교의 전도 이에 끝나고 말 것이어늘 홀연 마귀(馬龜)가 돌여(突如)히 방으로 들어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이를 필(筆)함을 불인(不忍)하노니 작자도 탄식하였도다. 가련하도다. 교향눈엽(嬌香嫩葉) 홀연 광풍투우(狂風妬雨)를 피(被)하니 유봉랑접(遊蜂浪蝶)이 어찌 석옥련향(惜玉憐香)을 알리오. 하고 취교 밤에 "내견광차(乃見狂且)"의 노래

9장을 지어 분개라 송별의 말에 취교 그 소견을 말하였도다. 그러하나 이미 뜻의 결함이 있는지라. 부모형제를 위로하니 부친은 눈물에 가리어 서로 이에 분메(分袂)할 새 마음에 싫건마는 취교는 만리의 정(程)에 상(上)하였도다.

운명과 경우는 취교로 하여금 처녀의 순결을 보(保)케 못하고 연화협사(煙火狹斜)의 땅에 타락케 하는도다. 취교의 타락의 광경을 작자 정치(精緻)한 필로써 써내니 김성탄의 외서라는 것에 왈, 여자일신무주(女子一身無主)요 고락유인(苦樂由人)이라 하였도다. 나 어찌 부인을 위하여 통분감개를 안 할까보냐.

운명은 용사(容赦)가 없이 취교를 구(驅)하여 이를 비참 심각한 경역(境域)으로 전(轉)코자 하는도다. 수레는 임치의 모땅에 도착하니 다만 보건대 나이 약 마흔 이상의 비반장대(肥胖長大)의 파(婆)가 취교를 견호왈(見呼曰) 교아는 하거래(下去來)하라. 수왕(隨往)하니 이는 창가공양(娼家供養)의 음사(淫祠)라. 세간을 알지 못하는 취교가 어찌 이를 효득(曉得)하리오. 시키는 대로 경배하니 노파는 천객만래(千客萬來)를 연호축도(連呼祝禱)하는도다. 아버지에게 보여라.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인고? 취교가 양인으로 알고 시집간 저 ○○○ 마귀(馬龜)라. 서방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고 취교는 경아(驚牙)라. 노파는 노하였도다. 마귀를 흘겨보며 업축(業畜)이라 매리(罵詈) 한번에 여파는 튀어 취교의 머리털을 잡고 타매삼매(打罵三昧)라. 취교는 그 창가임을 알고는 전후 불각(不覺)하고 체도(剃刀)를 잡아 나의 후(喉)를 일척(一刺)하였도다. 오호라 순결무구한 처녀는 고만 속아 마굴(魔窟)에 빠졌구나 생각하니 취교 이 기성(氣性)이 있은즉 가히 참지 못할지라. 악파도 내곤(乃困)이라 상료(傷療)를 대하여 타에 시집감을 약(約)하고 응벽루상(凝碧樓上)에 주(住)케 하니 일액(一厄)은 혹거(或去)함과 같으나 그러나 재액(災厄)은 접종(接踵)하여 가련아의 쌍견(雙肩)에 낙래(落來)코자 하는도다.

옹벽루상 제시간(題詩間)에 홀청(忽聽)하니 격루(隔樓)에 사람이 있어 음(吟)하여 왈,

樓外誰家靑髮娃, 長吟聲隔碧桃花.
愁侵筆底低疑咽, 怨向風前叫苦嗟.
遼接芳香嗔蝶蚡, 微通幽意喜窓紗.
卿須憐我才多藻, 我却憐卿未破瓜.

격루(隔樓) 서생이 있으니 표건화복(飄巾華服)이로다. 차생(此生)의 음영(吟咏)이 비록 양춘백설(陽春白雪)은 아닐지라도 또한 시서일맥(詩書一脈)이라. 나 화갱(火坑)을 벗어남에는 혹은 편함이 있을런가. 비록 혜(慧)하나 부인이라 치밀한 듯하고 대조(大粗)하니 일의(一意)로 마계(魔界)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저로 하여금 더욱이 고경(苦境)에 빠지게 함을 아느냐 모르느냐. 취교의 얼채(孽債)가 깊고 또 중하도다. 이는 제8회의 각색이라.

피일읍(彼一揖) 차일만복(此一萬福), 이심전심으로 취교는 저 격루의 서생 명은 초경(楚卿)과 지기가 되었도다. 취교 마침내 일서(一書)를 재(裁)하여 아아(啞兒)에게 탁(托)하여 이를 수(輸)케 하니 익(翼)에 일봉(一封)이 왔다. 개봉한즉 다만 석월(昔越) 두 자를 제하였거늘 해득하여 이십일일(廿一日) 술시(戌時)에 월장(越牆)하여 보러 온다는 뜻임을 알았다. 과연 저는 왔도다. 상어(相語)하여 화갱을 벗어나게 한다는 약속을 얻도다. 그러나 저 일찍이 정인에게도 몸을 불허하던 것을 홀연 일기우(一奇遇)에 감(感)하여 전후의 분별을 작할 여가가 없이 경경(輕輕)히 저에게 정을 주었도다. 일찍이 부친을 위하여 조(操)를 피하던 것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그 여덕(女德)을 욕되게 하도다. 그러나 모두 이 경우가 그렇게 함이라. 어떻게 할고? 이제 저의 가련한 가슴속은 고계(苦界)를 벗어나기에 절(切)하여 심려(心慮)도 않고

원찰(遠察)도 없이 초경(楚卿)의 삼십육계주위상책(三十六計走爲上策)이라는 구계(口計)에 떨어져 일야심경시(一夜深更時)에 월창(越窓)하여 둔(遁)하도다. 그러나 마침내 도료(逃了)치 못하고 홀연 잡힌 바 되어 미인은 적나라가 되어 일기파타이삼년(一氣破打二三年)이라 타일편(打一鞭) 전일전(轉一轉)에 또 참(慘)을 극하도다. 제9회는 이 참경(慘境)을 서하여 이 화재(禍災)가 취교 자신의 죄임을 보이도다.

연화장 안에는 자연 비우(備虞)함이 있나니 취교 기사(幾死)에 홀연한 분두(一粉頭) 마교(馬嬌)를 현출(現出)하여 취교의 고참(苦慘)을 구하게 하도다. 차일에 초경이 이르니 저는 원래 시정의 파락호라 취교를 파농(簸弄)하고 도주의 죄를 하나로 이를 남에게 돌리고 마교를 만착(瞞着)하여 스스로 호아(好兒)를 작하도다 취교 노하여 죄를 책(責)함에 이르러 주먹을 휘둘러 취교의 얼굴을 때리며 자신의 그 결백을 보이고자 의(擬)하니 홀연 일착(一齣)의 수라장을 연출이라. 중인(衆人)이 초경을 포(捕)코자 하니 망팔조귀(忘八鳥龜)의 응견(鷹犬)은 하는 수 없이 탈신도거(脫身道去)하도다. 마마(馬媽) 취교를 방(訪)하고 남에게 팔가 차라리 나를 좇을가 함을 묻거늘, 취교 둔거무유(遁去無由)하여 마침내 반신불여구신(伴新不如舊新)이라 함에 이르렀도다. 이에 마마 천천히 연화(烟花)의 비술을 수(授)하니 이곳은 묘문이요 또 묘술이라. 그 일용적(日用的) 제도에는 칠법(七法)이 있나니 一은 곡(哭), 二는 전(剪), 三은 자(刺), 四는 소(燒), 五는 가(嫁), 六은 주(走), 七은 사(死)라. 다 창가천부의 공부(工夫)를 요하는 것이니 모두 다 객(客)을 기롱(欺弄)하는 술법에 불과하도다. 도도한 기다(幾多)의 유염아(有髯兒) 이 비술에 걸려 그 손을 탈각(脫却)치 못하니 가련 또 가민(可憫)이로다. 제10회는 이 법으로 하여금 일독케 하였도다.

[哭皇天(意譯)] 이 내 팔자 기박하야 집안이 결단나니 이 몸 팔아 아버님 구하자 마굴(魔窟, 火坑)에 떨어졌소. 일찍이 이 몸으로 죽는 것을 바랐나니 이 노릇이 뭐 좋아서 인중지말(人中之末) 되었겠소. 간

인(奸人)의 함정에 가 잘못하야 떨어지니 내 입이 열이라도 변명할 길 전혀 없소. 돌보에 나를 달아 매질은 무슨 일고? 전신이 육장(肉醬)이라 죽었다 살아났소. 에그머니 살려주요, 듣지를 않는구나. 백방으로 애걸하니 겨우 매질 그치고서 억지로 나로하야 오입을 시키구료. 내 본시 양가녀라, 손달을 줄 어이 알리. 처음부터 꽃가지로 가르치는 말 듣고 보니 더럽기 한량없이 사람이 죽겠구료. 침석에서 주선하는 모든 비술 배가지고 밤마다 단장하고 손시중 드는구나. 손님이 안잘 적엔 감히 자지 못하고서 손님이 잠들면은 큰기침도 못하누나. 행여 손님 괴히 알가 조심되어 말 못놓고, 또 손님 갈가 보와 일시 방심 못하누나. 손님은 무도하야 제 욕심만 채려드니 저 할대로 맡겨두고 승순(承順)만 하는구나. 낯 익은 손님이면 그래도 낫지마는 초면의 손님들은 더구나 어렵구나. 우아함을 계관 않고 억지로 웃음지어 비위를 맞추야네. 큰 어미 아는 것은 다만지돈 뿐이랴 연추(姸醜)를 가리잖고 함부로 들이맞네. 고운 꽃 칡덤불에 속절없이 달려 있고 미인은 할 일없이 처치와 짝하도다. 입에서 악취난들 어떻게 내대이며 몸에가 병 있기로 뉘 감히 피할손가. 매일을 이와같이 지긋지긋 지내건만 조금도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리며 그칠 줄 모르는구나. 슬프다 살아서는 천사람의 계집이오, 아차 한번 죽어지면 무주고혼(無主孤魂)되는구료. 인생중 불쌍키는 창기 몸 됨이로다. 남의 처첩 되고 보면 주인은 있건만는 창기 한번 되고 보면 사생조차 모르겠네. 이것을 생각하니 금창(金瘡)이 배지누나. 어화 청루 벗님네야, 이내 말을 잊지 말고 속속히 몸을 빼쳐 마굴을 벗어나니, 다른 날 내 문전에 안마(鞍馬) 없어 냉락할 제 고연히 서풍 앞에 눈물지어 울지마소.

취교 이미 화갱(火坑)에 추락하니 염명(艷名)이 항리(巷里)에 훤훤(喧喧)이라. 그러나 저 고계(苦界)에 들어서 날이 상천(尙淺)이라. 생각하니 원창(怨悵)이 없지 못할 새 마침내 결(結)하여 이 「곡황천」 1장이 되니 비록 그 사(詞)는 교(巧) 못하겠으나 그 의(意)는 처창(悽愴)

하도다. 호금(胡琴)에 합해 이를 탄하니 청자(聽者) 개숭루(皆乘淚)라.

취교 꽃 아침 달 저녁에 만반 교태로 객을 대함을 보고 이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아침 아유(我有)를 만들어 금옥(金屋)에 두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중에 무석현(無錫縣)의 사람 속수(束守)라 하는 자 그 부친을 좇아 이 땅에 유(遊)라. 향(鄕)에 재(在)하여 이부천관(吏部天官)의 딸 관씨(官氏)를 취하니 아름답고 혜(慧)라. 그러나 그 심성은 간하고 곡(曲)한데 그 재(才)의 민(敏)함은 이를 능히 엄식(掩飾)하여 도리어 체면을 차리니 도저히 그 부(夫)의 미칠 바 아니라. 이는 진소위(眞所謂) 빈계사신(牝鷄司晨)이요 속수(束守)에 이르러는 무기력하고 용해 빠진 서방님에 불과한 위인이라. 일차 취교와 상우(相遇)한 후로부터 용금(用金)을 여수(如水)하다가 마침내 지시(至是)하여 치가(置家)할 의논을 하게 되도다. 이곳의 취교의 담화는 전일과 같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마마 전래의 비술을 잘 활용함을 알겠으며 제12회는 찻간의 소식을 말하도다.

제12회는 취교를 떼어 들이는 전말을 서술하였으니 말단에 속수가 그 부친에게 노한 바 되어 드디어 지부(知府)에게 피소(被訴)라. 그러나 지부의 풍류 재판은 취교에게 즉석의 일제(一題)를 명하고 진시가인(眞是佳人)이니 의배군자(宜配君子)라 길이 부부를 작하라는 단안을 내림으로 이료(以了)하였도다.

체면을 보려 하는 성정이 관저(官姐, 束守의 妻)로 하여금 사람이 취첩의 설을 전함을 금케하도다. 그러나 질투는 부인의 특성이라 심리에 자연 민민(悶悶)함을 불면(不免)이요 취교인들 어지 이를 알지 못하랴. 낭군의 충후침잠(忠厚沈潛)함이 두렵건대 지다성(智多星)의 대수(對手)가 아니라 간파하도다. 저 용해 빠진 속수와 같음은 못나기 짝 없도다. 저와 나 은애상투(恩愛相投)하여 결혼 이후 이때껏 마침내 반사(半辭)의 역언(逆言)이 없으나 그러나 내가 실로 이를 외(畏)하기 호랑이와 같으며 그 거지(擧知)가 단엄하여 일을 구차히 아니하니 신

명을 여견(如見)이라. 고로 방사(放肆)치 아니할 뿐이라 하도다. 저가 그 처를 외(畏)함이 이와 같아 그 처첩한 일에 이르러는 다만 그 앎을 두려워하니 이 얼마나 용물(庸物)인가. 그러나 천하에 이와 같은 자 많도다. 이에 이르러 자처를 귀성하게 되니 이제 취교 장리(掌裡)의 물인 용물은 잠리(暫離)를 불고하도다. 많은즉 반년이요 적은즉 석달이라. 일년은 필류(必留)하라. 취교가 권하는 말에 간장(肝腸)이 역단(亦斷)이라고 읍안(泣顔)함도 가소로다. 취교의 금석하석(今夕何夕) 10수에 이르러는 가관할 것이 있도다.

今夕是何夕, 朗君賦遠遊. 妾在家中頻記日, 問君何日再回頭.
今夕是何夕, 情傷惜別離. 日曲躑歌兩行泪, 送君明月出陽關.
今夕是何夕, 傷別不成歡. 無端鐵馬風飄驟, 驚散離婚就枕難.
今夕是何夕, 明朝各日天. 瞻望復關何處是, 愛而不見涕漣漣.
今夕是何夕, 月圓人且離. 兩地江山萬餘里, 不知何日見歸期.
今夕是何夕, 相對難爲言. 忽聞天半孤鴻淚, 似訴離情話未安.
今夕是何夕, 醉飮不忘悲. 人道解悲須是酒, 酒入儂膺愁更催.
今夕是何夕, 强咲媚良人. 怕郎憔悴因儂病, 惜郎勞苦慰郎心.
今夕是何夕, 生離共死別. 死別能期會九原, 生離兩地惟啼血.

이별의 정을 각양으로 서래(叙來)하여 이곡의 전반은 자못 유취(有趣)라. 취교의 혜재(慧才)와 속수의 용렬(庸劣)을 상배(相配)하여 기채(奇彩)를 이루니 금소공숙부용장(今宵共宿芙蓉帳)이나 명일서기가내하(明日棲其可奈何)오. 속수(束守) 유수미건객미로(流水未乾客未老)하니 타년의구가은하(他年依舊架銀河)라 취교는 웅대의 변(邊)을 문사가 묘절하도다.

차회의 후반은 또한 관저의 혜재와 속수의 용렬을 상배하여 기채(奇彩)를 방(放)하니 전반은 이(離)은 후반은 합(合)이라. 속생(束生)은 원래 어리백이라 귀가하여 처가 취첩을 알지 못함과 같이 구고(舅姑)

를 방(訪)하고 일언취첩(一言娶妾)의 일이 없음에 안(安)하여 양가가 불문(不聞)과 같음을 암희(暗喜)하고 있다가 일봉(一棒)으로 급소를 피타(被打)한 것도 실로 분반(噴飯)하기에 족하도다. 자 시역(詩譯)하여 볼까.

어느 날 저녁때였다.

안해가 이러한 말을 하였다. 하마 하더면 남에게 속을 뺀 하였다오. 요전에 속추(束芻)란 녀석이 임치에서 돌아오더니 아마 임자가 기생같은 것을 불러서 술 잡숫는 것을 보았나 보아요. 임자가 첩 치가(置家)를 하였다고 떠들겠지요. 어떻게 얄미운지요. 그래서 내 말이 서방님과 나와는 피차에 속이지 않고 지내는 터에 그런 다갱이를 감추고 꽁무니 드러내어 놓는 짓을 하실 리가 있느냐 하고. 어떻게도 괘씸스러운지요. 여보서요, 좀되지만 누구를 시켜 그녀석의 이를 네 개를 빼주었지요. 그런 후부터는 그런 말 하는 자가 일절 없어요. 전혀 그것은 임자가 기생을 불러 약주를 잡수신 일이 아마 계신 줄 모두 알아요. 여부서요. 그래 내가 한 일이 잘못하지는 않았지요.

속생은 낯을 붉히었다. 마치 궁둥이가 자리에 붙지 않는 듯이 허둥허둥하면 간신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기생을 부르는 것은 교제상에 흑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 첩을 두면 그 말이 자네 귀에 안 들어갈 터인가. 헤헤 …… 그래 그런 줄 알아요. 고만두세요.

일월은 여사(如梭)라. 어느덧 일년은 꿈같이 지나가매 속수는 배에 올라 임치로 향하여 가니 관저는 스스로 일개의 묘계가 있도다.

> 束生未去, 我欲擒那婢子來, 取他的氣, 又恐恥妬婦惡名, 傷夫婦和氣, 所以佯爲不知耳. 他今日去了, 我欲定一策, 拿來做了了頭, 只說見爹爹計與我的, 叫束生回來, 日堂聚首, 他認又認不得, 說又說不出, 在我拔去眼中釘, 而無女平章之名, 在他受飢狸鼠之愚, 而甘爲妾婦之羞, 分遂此衷.

질투의 일념은 이에 이 참형을 안출(案出)하도다. 취교의 신상에 또

한 일대봉(一大棒)을 갈래(喝來)라.

영웅도 난을 만나 왕왕 몸을 상하나니 하물며 취교는 일개 여자라. 호협에게 피겁도래(被劫盜來)하여 그 참화를 받음을 또한 어찌 족히 기하다 하리오. 홀로 이 엄엄(嚴嚴)한 대신은 나라를 위함으로 민을 근심하여 일물(一物)이라도 기소(其所)를 얻지 못함을 두려워하나니 이에 처녀(妻女)를 가(家)에 종(縱)케 하여 호노(豪奴)를 지휘하며 이 불공불법(不公不法)한 일을 간(幹)하니 시하심(是何心)고? 알지 못하고 이를 위할진대 가(家)를 제(齊)키 불능하거늘 어찌 감히 나라를 다스리며 알고도 짐짓 종(縱)케 하니 더욱 불가하도다. 차호(嗟乎)라 대도(大都)세위(勢位)를 양성(釀成)하여 불각불찰(不覺不察)하니 이로 보건대 천하의 원굴(寃屈)을 무신(無伸)이요 통고(痛苦)를 무소(無訴)니 홀로 한 취교 뿐 아니로다.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호탄(浩歎)치 않으리오. 탄(歎)은 즉 탄(歎)이나 실로 취교를 위하여 탄함이 아니요 세도인심을 위하여 탄하노라 함은 이것이 제 14회의 외소에 성탄이 통탄한 바니 소위 남의 주배(酒盃)를 빌려야 자신의 뇌괴(磊塊)를 요(澆)한 것이로다. 취교 속생(束生)이 간 뒤에 사념은 저를 회(懷)하여 읊은 것이 자군지출의(自君之出矣)의 육절(六絶)이라.

自君之出矣, 日日望靑鸞, 靑鸞望不至, 徒見白雲端.
自君之出矣, 不敢上高樓. 樓外有楊柳, 絲絲會惹愁.
自君之出矣, 不言亦不哭. 言則無知音, 哭恐驚郎寐.
自君之出矣, 張燈頻顧影. 顧影自徘徊, 消瘦可憐憫.
自君之出矣, 厭日照空床. 薄衾部成寐, 孤枕怕嚴霜.
自君之出矣, 無日不南思. 思君君不至, 淚滴滿羅裙.

이밤 원중(園中)에 이르러 향을 사르며 충정을 구점(口占)하는데 화음(花陰) 아래 돌여(突如)히 십수 개의 장정을 현(現)하여 취교를 방(綁)하여 입에 독을 던지고 다시 그 집에 방화하여 취교를 추(推)하여

중당(中堂)에 들어감과 같이 하고 말을 타고 일진의 음풍과 같이 자취를 감추었도다. 인리의 불을 구하다가 신중(爐中)에 한 시체를 보았다. 중인이 가엾게 여겨 이에 다비(茶毘) 한 조각 연(煙)으로 화하고 망측식왕씨신위(亡側媳王氏神位)의 위패로 변하였도다. 속생이 돌아와 경악막조(驚愕莫措)라. 일도십명(一道十名)은 동현(洞玄)이라는 자에게 점(占)케 하니 도사 운하되, 차부마정보중(此婦魔頂保重)이라. 아직 즉사치 못하고 이제 낙(落)하여 기패난중(氣孛難中)에 있으니 일년 후에 마땅히 상견함을 얻을 것이니 다만 인연을 다시 잇기 불능할 뿐 아니라 하도다. 속생은 반신반의하여 이로부터 알아 처참이라.

저 호적(豪賊)은 어떠한 자인고? 투부(妬婦) 관저가 보낸 배라. 취교 독에 중(中)하여 혼혼(昏昏)히 수와(睡臥)하는 사이에 이미 몸은 무석관부 중에 있도다. 해약(解藥)을 써서 깨어나니 여기가 어디런가. 관씨의 어머니가 이를 소(召)하여 이를 파농(簸弄)하고 언여(言餘)에 매질까지 나도다. 청의(靑衣)를 입게 하고 화노(花奴)라 명명하여 일개의 요두(了頭)로 화(化)라. 찻간에 일개의 노파가 있어 자못 취교에게 후하거늘 취교 이로 인해 자위하여 세월을 보내며 관소저의 좌우에 시(侍)하여 탄현(彈絃)으로써 소한(消閑)의 용(用)을 조(助)하도다. 일일보(一日報) 있어 서방님이 돌아왔다 하거늘 청상에 이르러 투안일별(偸眼一瞥)하니 아이구나 서방님은 속생이로구나!

제15회는 압권의 호각색(好脚色)이요 또한 호문사(好文辭)라. 취교 이에 이르러 투부의 계책임을 알도다. 관저 연호(連呼)함으로써 들어와 속생의 앞에 이르러 절하니 이곳은 구구개활(句句皆活)이라. 속생은 어디로부터 옴을 물으며 관씨는 호금의 능함을 칭하여 속생으로 하여금 염두에 죽은 취교를 다시 생각게 하도다. 관시가 화노에게 거두(擧頭)함을 명할 때에 취교 응성일번(應聲一番)에 일어나 소저의 신변에 있거늘 속생이 일안간거(一眼看去)에 기상(其狀)이 여하(如何)

오? 희(噫)라! 시하사(是何事)오? 분분이 골수에 철(徹)하나 빈계사신(牝鷄司晨)의 집이도 속생의 못 남은 돈견(豚犬)과 같고 니귀(泥龜)와 같아 눈물을 흘리다가 관씨에게 들켜 기복(起服)이 재근(在近)이라. 모친을 생각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름에 이르러는 도리어 가련함을 금치 못하게도 다 이이(已而)오. 연회를 열매 취교의 화노 들어와 작(酌)하거늘 호금을 명하매 발일발(撥一撥)에 가창하니 일곡(一曲)의 통한사(痛恨詞)로다.

妾身薄命落娼家, 嫁得良人寔富華, 綺羅隊裡笙歌迭, 翡翠營中音律奢, 迍邅妬雨隨風泊, 又向侯門寄浪槎, 咲啼不敢如無我, 喜怒由人只問他, 聞道主翁千里近, 相逢却是舊儂家, 一爲座上風流婿, 一爲廚下小庸娃, 四目相看生氣斷, 兩心相炤死爭些, 漫把胡琴調舊怨, 悲哉. 今日寔堪嗟, 悲今日兮, 位次何迂,懷舊事兮, 按拍長吁, 相逢물語兮, 肝腸欲斷, 何時重會兮, 雙雙同飛.

속생은 번민하여 구부득(救不得)이오 취교는 단장하며 고부득(告不得)이언만 관씨 쾌연히 독락(獨樂)하는 모습은 작가 기필(奇筆)을 놀려 자경(蔗境)에 들었도다. 속생의 면전에서 고문코차 하는 처(處)는 발부(潑婦)의 포상(暴狀)이 지의진의(至矣盡矣)로다. 그러하나 못나고 안해에게 굽쥐어 지내는 속생은 속수(束手)할 뿐이라. 취교 드디어 입사귀불(入寺歸佛)함을 걸(乞)하니 이에 속가(束家)의 관음각(觀音閣)에 들어가 경을 쓰게 되도다.

제16회는 즉 관음각 위에서 사경(寫經)함을 서술하니 속생의 용우(庸愚)함과 관씨의 전횡함과 취교의 박명함을 묘사하여 유감이 없도다. 속생이 투한(偸閒)하여 취교를 만나고 이에 탈주를 권하여 니사(尼寺)에 잠은(暫隱)함을 가르치니 취교 이에 일게(一偈)를 제료(題了)하고 가도다.

去去去, 無生寄, 踢倒醋甁, 扯斷纍繫, 如來八萬四千, 獅吼三十六度, 不是

脚快得逃生, 又破頭套無間室, 咦去得趣, 日瓢日鉢蕩天涯, 無拘無束隨風住.

마침내 위칭(僞稱)하고 초은암(招隱庵)이라 하는 니사(尼寺)로 들었도다. 화는 소장(蕭墻)에서 일어나도다. 암중 우란대회(盂蘭大會)의 때에 취교 재래(齎來)한 속가(束家) 특○의 금종은경(金鐘銀磬)의 일로부터 하마 취교의 본적(本跡)이 탄로(綻露)에 이른지라. 이에 이르러 취교 일일이 자신의 경력을 암주(庵主)에게 고하니 암주 민연(憫然)하여 이를 박마마(薄媽媽)에게 탁(托)하도다. 박마마 이 노(奴)는 일개 악파라 빈빈(頻頻)이 풍성을 작하야써 취교를 위하(威嚇)하여 그 조카 박행에게 시집가게 하니 이에 이르러 취교는 그 몸을 보기 마치 분토(糞土)와 같도다. 원천의 청(請)은 거(去)하여 적(跡)이 없고 오직 탁류가 혼혼(混混)할 뿐이니 조(操)와 그 절(節)은 그 아는 바 아니로다. 경우는 사람을 작하나니 한낫의 티끌도 이를 싫어함은 깨끗할 때의 말이라. 순결이 일찍이 저와 같던 자 이제는 이와 같도다.

박행은 원래 육경기(肉經紀, 계집 놀리어 먹는 놈)라. 취교는 또 속았도다. 작자 이에 또 이 구상을 덧붙이니 졸렬이 극이라. 취교 재매(再賣)되도다. 그러나 왕일(往日)과 오직 천운(天運)에 맡길 뿐이라. 전후의 상이(相異)가 이와 같으니 창가(娼家)도 족히 놀랄 것이 못되도다. 사람은 저를 보고 환(歡)을 구하며 저는 사람을 차(借)하여 흥(興)을 구하도다. 호가(豪歌) 밤을 철하여 그 이름이 드디어 떨치다. 진인(秦人)이나 초객(楚客)이나 오객(吳客)이나 월인(越人)은 저의 묻는 바 아니라. 누가 이로써 운명과 경우의 소치(所致)가 아니라 하리오. 이제는 원천의 맑은 것으로써 저에게 구치 못할 것이요. 하류의 탁랑(濁浪)으로써 저를 볼 뿐이로다. 월인(越人) 서명산(徐明山)이라는 자는 원래 일세의 인걸이라 조정에 불평을 품고 대병을 옹(擁)하여 관병에게 대항하도다. 취교 그의 식(識)한 바 되어 속신(贖身)이 되니 호운(好運)이 마침내 취교를 착(捉)하도다.

제18회는 취교 득의의 장인데 도리어 이 작의 대하(大瑕)에 속하도다. 왕부인 취교는 민(民)에 은덕을 베풀고 서명산은 취교의 은인을 잡아와 기보(其報)를 보이는 대0목은 독자의 쾌재를 사기 위하여 설(說)함에 불외(不外)하니 실로 아희(兒戱)에 유(類)하도다. 권징(勸懲)의 폐 이에 극의(極矣)라. 속생 나부(懦夫) 종시일관 하니 이는 가관이오 그 참형보덕(慘刑報德)은 수불필설(須不必說)이로다.

서명산이 관병을 곤케 하니 초항(招降)의 사자가 빈번히 오나 진혁이환(盡嚇以還)케 하도다. 그러나 마침내 취교의 말에 몸을 그르치는 곳은 이 차회(次回)의 출색문자(出色文字)된 소이다.

관군은 취교를 농락하니 취교는 여자의 천박지심에 천자에게 아뢰어 써 부인을 정장(旌奬)하여 영(榮)을 하(荷)하고 고리(故里)에 귀성하여 부자 단원(團圓)하고 살아서는 정(鼎)에 열(列)하고 죽어서는 혈식(血食)케 한다는 감언에 떨어져 명산을 고간(苦諫)하니 여자 일언에 능망가국(能亡家國)이라. 시에 이르되 혁혁종주(赫赫宗周) 포사망지(褒似亡之)라 하니 명산 이 호걸로 백만의 병도 안중에 두지 않던 자 마침내 한 필부의 말에 오(誤)한 바 되어 하잘것없이 적의 술중(術中)에 빠져 피살할 새 부인이 오아(誤我)로다 한 말기의 탄식은 하기처창(何其悽愴)한고? 그러나 시의만의(時矣晩矣)라. 나는 그 한갓 의혹의 말임을 연지(憐之)할 뿐이라.

> 立而不仆, 兩個時辰, 諸方敢近前, 猶聞嘆聲, 退步數十步, 見尸不動, 然後知其眞死, 卽報陰謨張態, 二將見此光景, 令軍人推之, 如石鑿成, 如金鏤就, 那里推得到, 忽翠翹爲諸軍擁至, 見明山死立不仆, 翠翹哭道, 彼英雄士也, 因妾苦勸歸降, 不得其死, 怨氣不散, 故雖死猶立, 待妾親拜慰之, 對死屍拜祝道, 大王, 妾寔愧你, 然終不敢獨生以辜大王厚德,說畢, 放聲大哭, 徐明山立的屍首, 把眼一睜, 淚如雨落, 屍亦隨仆.

명산은 사후에도 오히려 일부(一婦)에게 동한 바 되도다. 아녀자의 한 방울 눈물이 마침내 호걸을 야유하는구나.

원문호로(轅門犒勞)의 연(宴)에 취교가 명에 의하여 호금을 탄하니 이에 이르러 저 또한 마침내 기(妓)됨을 면치 못하도다. 왕일에 열렬하던 정부(貞婦) 지금에는 삼문(三文)의 가치도 없고 저 은인은 죽었거늘 자살치 못하고 하물며 핍(逼)한 바 되어 몸으로써 독군(督軍)에게 허함과 같음에 이르러는 거의 음부와 다를 것이 없으니 경우는 마침내 왕일의 가련한 취교로 하여금 조(操)를 보기 폐리(弊履)와 같은 일개필부로 화케 하도다. 그러나 저 오히려 반점의 수괴(羞愧)가 있으니 독군이 이를 군장(軍長)에게 사(賜)함에 저도 세(世)를 무정히 생각하였도다. 전당강 위의 저녁에 조신(潮信)을 듣고 그 땅임을 알고는 유담선 십오년 전의 약속을 생각하고 붓을 들어 제하여 왈,

十五年前有約, 今朝方到錢塘. 百歲光陰火燦, 生身事黃粱. 潮信催人去也, 等閑了却斷腸.

이에 몸을 던져 강속에 들어가니 바로 녹주쇄정시(綠珠碎井時)라. 취교의 얼채(孽債)는 이에 이르러 불진(拂盡)하고 겁수(劫數) 이에 소(消)하도다. 작자 이위(以爲)하되 압일(狎昵)의 소은(小恩)을 불념(不念)하고 조정의 대의를 중히 한 소치(所致)라 하도다. 취교 부활이라.

초은암의 암주 행각(行脚)하다가 삼합도고(三合道姑)를 방(訪)하여 취교 소겁(消劫)의 고(故)를 알고 전당강변에 암을 구(購)하고 매선이대(買船以待)하다가 마침내 취교를 구제하도다. 취교 구조되어 창중(艙中)에 있을 새 혼미불 성시에 황연히 유담선을 보라 이르되 종전의 고(故)는 이마 역진(歷盡)하고 금일의 겁(劫)은 또한 소완(消完)이라 하도다.

제 20회는 대단원이니 저 김중은 취운과 결혼하였도다. 그러나 취교의 왕일맹(往日盟)을 불망(不忘)이라. 우연히 취교 일생의 사력(事歷)을 상지(詳知)하고 전당강에 위패를 설하여 주 삼배를 전(奠)하고 송옥(宋玉)의 초혼사(招魂辭)를 노래하여 이를 제(祭)하니 이에 암주(庵

主)를 만나고 이에 취교와 만나 부모제매가 모두 일당(一堂)에 기우(奇遇)하도다. 취교 마침내 고권(苦權)을 봉(逢)하여 다시 김중과 비록 구약을 속(續)하였으나 저는 마침내 김중에게 몸을 허치 아니하도다. 화잔월결(花殘月缺)에 오히려 면안잔빈(緬顔殘鬢)을 요(撩)하여 신인이 되어 써 군자에게 배(配)코자 함은 첩이 홀로 마음에 괴(愧)치 아니랴 하며 우위(又謂)하되 만일 반드시 해당신시(海棠新試)를 작할진대 곧 이는 첩을 욕되게 함이라 하고 저는 마침내 유부(有夫)의 과부로 그 몸을 이종(以終)하였도다.

작자는 저를 일생 열녀로써 보았도다. 그러나 경우가 저로 하여금 열녀로서 타락한 경로를 써내어 자못 상세하도다. 저 매색배(賣色輩)가 흔히 이와 같은 경우에 핍한 바 되나니 경우와 운명을 보면 나 마침내 반점의 눈물이 가히 없지 못하도다. 그러나 그 타락가에 이르러는 저 무리 거의 양심을 잃으니 이에 이르러 어찌 저 무리에게 향하여 결교교(潔皎皎)함을 가히 구할 수 있으리오. 천하의 유혈유루(有血有淚)한 선비가 저 무리의 운명과 경우를 보고 동정을 표함은 가(可)요 만일 그 원천의 연연(涓涓)함을 생각하여 이를 하류의 혼혼함에 구함은 비(非)니 근래 매색(賣色)의 무리가 왕왕 문사의 필단(筆端)에 현래(現來)하여 많은 동정을 받도다. 문사가 인도를 창하야 고여사(固如斯)할지라. 그러나 나는 또 한 저 사상(思想) 미정(未定)한 소년 독자에 대하여 다소의 염려가 없지 못하다.